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9.(월) 11:00 < 1.10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9.(월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 송현주 (044-203-4330)
	조선해양플랜트과	담당자	사무관 여수향 (044-203-4332)

1차관, 조선업 현장에서 인력난 해결방안을 논의

-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 및 업계의 애로사항 수렴 -
- 생산 스마트화, 원·하청간 상생협력 강화 등 해결방안 마련 적극 노력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 장영진 1차관은 1월 9일(월)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**조선업 인력 현안간담회를 개최**하였다.

< 조선업계 인력현안 간담회 >

- **일시·장소** : 2023.1.9(월) 13:30~15:30 / 경남 거제시 일원(대우조선해양)
- **주요내용** : 조선업계 인력수급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
- **참석** : (**정 부**)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, 경남도, 거제시 등
  (**업 계**)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삼강 M&T, 대우·삼성 사내협력사, 사외협력사, 조선협회, 경남 기자재조합,

□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**수주실적***이 **'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**됨에 따라 **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**되는 가운데,

* 국내수주량(만CGT) : ('19) 1,007 → ('20) 828 → ('21) 1,764 → ('22) **1,559**

○ **어려운 작업환경**과 **상대적으로 낮은 임금**으로 인해 **인력공급이 부족**하여 **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.**

○ **이번 간담회**는 생산현장에서 **업계의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**으로 **현재의 인력부족문제를 진단**하고, **민관이 함께** 실현가능한 **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"우리 조선업계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**최근 2년간 대규모 수주**를 통해 **3년치 일감을 확보**한 상황"이라고 하고,

○ "실제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**건조물량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**"고 전하며, **현장에서 실감**하는 **조선업**의 **시황 회복 분위기를 전달**하였다.

○ 다만, 16년 이후 **장기간 이어진 불황**으로 **다수의 인력이 유출**되었고, **생산해야 할 물량은 증가되어 차질 없는 생산을** 위해서는 생산인력이 **신속**하게 **투입되어야 한다고** 밝혔다.

○ 한편,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**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**과 **인력양성 사업, 시급한 인력을 확보**할 수 있었으며, 특히 최근 발표한 '**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**'도 그간 **업계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**되어 **인력확보**에 **큰 도움**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.

□ 이에 대해 **장영진 차관**은 우리 조선업의 **경쟁력**은 **앞선 기술력**과 **선박을 차질 없이 건조**할 수 있다는 **신뢰**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,

○ 현재 국내 조선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**첫 번째 과제**가 바로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한 **인력난 해소**라고 밝혔다.

○ 그 일환으로 정부는 1월 6일 '**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**'을 발표하고, **비자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**하고, **도입 비율을 20 → 30%***로 확대하는 한편,

* (현행)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(3개월 이상 근로)의 20%까지 허용

○ 고졸 이상의 **외국인 연수생**과 국내 체류 중인 **외국인 유학생** 및 **단순 노무 인력(E-9)** 등이 **조선업으로 유입**되도록 **제도를 정비**하였다고 말하였다.

□ 또한, 장영진 차관은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**국내 신규인력 유입**을 **촉진하기 위한 지원** 등도 **계속할 예정**이라고 말하였다.

○ 우선 구직자를 대상으로 **맞춤형 생산교육**과 **채용지원금**을 **지급**하는 **인력양성사업***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**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**하고,

* 지역생산인력양성사업 : 인력양성(국비 80억원) + 채용지원금(지방비, 월 60만원씩 6개월간)

○ 조선협회 등과 **지역별 채용설명회, 마이스터고·지역대학 산업특강** 등 **유치 홍보활동**을 통해 **조선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**는 한편,

○ 조선업 밀집 지역에 '**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**'를 조속하게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**인력** 등 **현장 애로사항**에 **신속하게 대응**할 것이라고 말하였다.

□ 특히, 장영진 차관은 **근본적인 인력난 해결**과 **경쟁력 강화**를 위해서는 **작업환경과 임금구조 등 개선**을 통해 '**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**'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,

○ 이를 위해 산업부도 저가 수주 방지, 원·하청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**임금구조**를 **개선**하는 등 관련대책도 **관계부처와 준비 중**이며,

○ 국내 조선산업이 AI·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**자동화·디지털화**로 **인력난에 대응**할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지원***할 것이라 밝혔다.

* 배관 등 설계 디지털 전환('23년 25억원), 소조립 생산 지능화('23년 32억원)

○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**업계도 자발적**으로 **임금구조 개편, 생산 스마트화** 등 **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**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